

기층문화를 통한 한국복식의 색채 특성 연구

김 지 영* · 김 영 인**

서일대학 의상과 교수* ·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전공 교수**

The Characteristics of Color on Korean Costume by Basic Culture

Ji-Young Kim* · Young-In Kim**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and Textile, Seoil College*

Professor,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2005. 9. 1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colors of the costumes in Korean basic culture in the aim of seek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onceptual meanings of colors found in the majority's culture. The scope of the basic culture was divided into folk belief, folk game and folk play. Within these limits, the colors of the dress, accessories, instruments were extracted by comparing with the naked eye in NCS Color System. For the analysis of hue and tone, the secondary dimensional analysis using NCS color system and the three-dimensional analysis using the software, COLOR 3D Version 2.0, were done.

The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is that the colors of the costume in the Korean basic culture are white, gray and black of achromatic color and yellow, yellowish red and purplish blue. This confirms that the colors based on Five-elements color are becoming the basis too basic culture. And Arche-pattern, which is a characteristic commonly found in the Korean traditional society, was shown as a characteristic of color.

The colors of the costumes in Korean basic culture are uniquely adopted by the Korean civilians according to their religious and philosophical living standar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seeking a root for the formation of their unique color culture.

Key words: color analysis(색채분석), NCS color system(NCS 색체계), basic culture(기층문화), arche-pattern(원본사고), traditional color(전통색), Korean color(한국의 색)

I. 서론

민족 고유의 문화와 민족의 원형이 내재하는 기층문화는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대변하고 민족정신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분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민간인에 의하여 과거에서 현재까지 전승되어 온 한국의 문화, 즉 기층문화에 초점을 두고 한국의 색채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과거의 한국 전통 색채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의 문화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색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복식의 색채는 한국인 대중이 시대를 초월하여 즐겨 사용하는 색채이며, 여기에 나타나는 색채는 과거와 현재의 재료와 기술의 차이에 의해 원형 그대로 전승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의 모습 그 자체이므로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한국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디자인 요소로서의 색채 개발과,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 한국의 정서를 담은 한국의 색채를 세계적으로 인식시키고 보급하는데 있어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민족의 보편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의 기층문화에서 발견되는 복식의 색채특성과 그 관념적 의미를 밝힘으로써 한국 문화에 나타난 복식색채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복식의 연구 대상의 범위는 현대에 전승되고 있는 문화현상 중에서 복식이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종교와 예술의 상황적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기층문화를 대상으로 한다면 일상생활에 나타난 복식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종교와 예술 측면에 나타난 복식은 현대에도 민속 축제에 계승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의 수집이 용이하나, 일상생활의 복식은 여러 문헌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로 “무채색 복식”이었으며 또한 색채를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아직 미비함으로, 이 연구의 실증적 연구 대상의 범위에서는 제외시켰다. 종교 영역에서는 민간인의 종교인 민간신앙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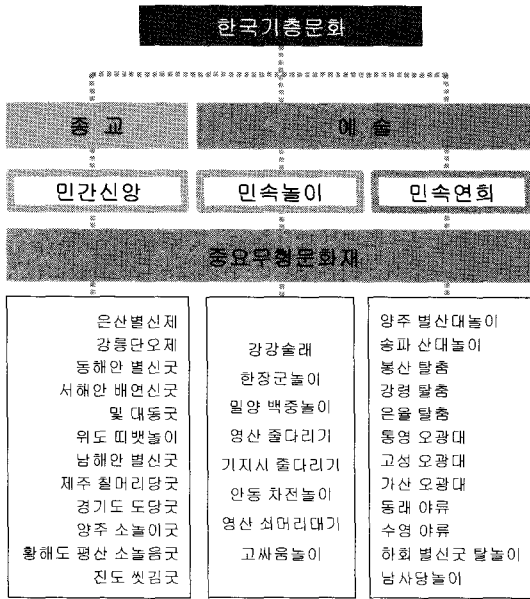
으로 하고, 예술 영역에서는 민간인이 주체인 민속놀이와 민속연희로 나누어 범위를 제한하였다. 민속놀이와 민속연희는 민중성과 공동체의식이 두드러지는 세시놀이, 민속극과 남사당놀이에 중점을 두었다.

기층문화에 대한 연구는 역사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생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문헌적 자료나 유물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계승과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일상생활 속에서 전승되어 오고 있는 기층문화 현상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는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 즉 인간이 주체인 행위이므로 그 현상에서 나타나는 섬유소재의 직물이나 종이로 된 의복, 액세서리 그리고 도구의 색채를 연구대상의 범위로 설정하였고, 여기에는 인간이 착용한 복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의복에는 옷, 허리띠, 버선 등 인체에 밀착하고 있는 전반적인 것을 포함시켰고, 손에 들고 있는 전반적인 것은 액세서리로 분류하였다. 또한 도구는 그 외에 인체에 밀착하지도 않고 손에 닿지도 않은 배경장식 전반적인 것을 도구로 분류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연구대상의 범위는 민간신앙, 민속놀이, 민속연희에 나타난 한국의 기층문화이면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 즉, 전체 중요무형문화재 103종 중 기층문화가 표현된 32종을 채택하여, 여기에 나타난 섬유소재의 직물이나 종이로 된 의복, 액세서리 그리고 도구의 색채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기층문화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기층문화의 범위를 민간신앙, 민속놀이, 민속연희로 분류하고, 각 분야에 해당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의 각 종목의 사진을 수집하여 색채분석에 사용하였다. 사진자료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한국 전통문화의 보존과 연구를 위해 1995년부터 중요무형문화재의 본격적인 기록화 사업으로 기획한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시리즈와 <문화재청>이 기획한 「중요무형문화재」시리즈, <문화재 연구회>의 「중요무형문화재



〈그림 1〉 연구대상의 범위

1. 그리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에서 1차로 총 246장의 사진을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중복된 복식과 절차를 제외시키고, 인쇄된 사진의 색채 상태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자료에서 제외시켜서 총 190장의 사진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색채 속성상 어떠한 전통색채도 유물로서 온전히 보존되어 있지 못하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현대의 한국인이 계승하여 온 색채를 얻어진 사진자료에 의해 간접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진의 현상과 책의 인쇄에서 오는 색감의 오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의 복식 색채를 샘플조사 방법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즉, 현존하는 무복 20벌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NCS Color Reader CECF-9로 기기측색하여 분석한 결과, 민간신앙에서 조사된 복식의 색채 중 0.5%이상의 색채 빈도를 나타내는 색채 35색 중 32색이 같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 연구에서 선정된 사진자료를 통한 색채분석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둘째,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복식의 색채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준화된 색채전달도구에 의해 색채를 분석하기 위하여 NCS 색체계를 기반으로 의복과 액세서리 그리고 도구로 분류된 조사대상의 사진상의 색채를 시감비색으로 추출하였다. NCS 색표집 제2판을 이용하여, 측색은 GretagMacbeth사의 Spectra Light II에서 측정반사각 0/45, 광원 D65 그리고 측정시야각은 10 로 진행하였다.

색상과 색조 분석은 NCS 색체계를 이용한 2차원 분석과 소프트웨어 〈COLOR 3D Version 2.0〉을 이용한 3차원 분석을 하였다. 〈COLOR 3D Version 2.0〉은 3차원 공간에서 색채좌표와 색영역을 보여주는 소프트웨어로, L*a*b* 축이나 XYZ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색의 삼축성에 따른 색채 공간에서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자 CIE L*a*b*값을 이용한 3차원 분석을 병행하며, CIE L*a*b* 입체상의 b, a, -b, -a와 NCS 체계의 Y, R, B, G를 비교·고찰하였다.

셋째,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복식 색채의 관념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한국 기층문화에 왜 그러한 색채가 사용되었으며 한국인의 어떠한 심성이 그러한 색채를 사용하게 하였는가에 대하여 한국 기층문화 전반에 걸쳐 내재된 원본사고(原本思考)를 통하여 해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복식의 색채 특성과 관념적 의미와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넷째,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복식 색채에 대한 종합적 해석에 의해 한국의 색채문화의 고유성을 규명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한국 기층문화

문화를 상층·중간층·하층의 3계층으로 나눌 경우, 상층문화는 소수의 정신적 지도자층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고, 중간층문화는 상층문화가 중간층에 불완전한 모양으로 받아들여진 문화이며, 하층문화는 이들 상층에서 형성된 문화가 민족의 모태로서

의 서민대중인 기층에 침하(沈下)한 것인데, 이 기층 속에 유지되어 있는 문화를 기층문화라고 한다. 이는 외부로부터 수용한 표층(表層)문화와 대응되는 것이며, 민족이나 지역의 문화가 내적인 발전·전파·접촉·피정복 등에 의하여 유지하고 있는 그 민족이나 지역의 전통적이며 고유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¹⁾.

한국의 기층문화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와 놀이, 예술 그리고 생활이 서로 혼합되어 종합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고대로 올라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정치권과 제사권이 분화되지 않은 제정일치 시대에는 종교와 예술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었다. 즉, 우리 고대 사회의 국가적 종교의례였던 굿은 문학·무용·음악·놀이·의식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전통예술이기도 하였다²⁾. 무당이 부르는 노래는 음악이고, 그 음악과 결합된 사설은 문학이며, 무당이 굿을 하면서 추는 춤은 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예술은 원시종합예술로부터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이때의 원시종합예술은 문학, 음악, 무용 등이 미분화(未分化)된 상태의 예술을 의미한다³⁾.

이와 같이, 한국 기층문화는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며, 한민족 고유의 예술은 제천의식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2. 민간신앙

민간신앙이란 민간층에서 전승되는 자연적 신앙, 곧 민간인의 생활을 통해서 전승되고 있는 자연적 종교현상을 의미한다. 불교와 기독교 등이 교조(敎祖)에 의한 교리(敎理)가 문서화되고 이것을 중심으로 인위적 조직을 갖는 인위적 상황의 종교라면, 민간신앙은 교조에 의한 교리가 문서화된 경전(經典)이나 체계화된 조직이 없는 자연적 상황 그대로의 자연적 종교이다⁴⁾. 이러한 민간신앙은 한국 민간인의 생활에 뿌리 깊이 정착하여 한민족의 보편적 기층종교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색채도 민간신앙적 색채관 위에 중국의 음양오행사상과 유교적 신분구조를 나타내

는 색채의 사용으로 인한 영향이 적층을 이루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무당이 굿을 할 때 입는 무복은 신을 상징하기 위해 입는 의례복으로, 무복의 명칭은 지역에 따라 신복(神服)·입석·신입석·신령의대·신령님 옷 등으로 불린다⁵⁾. 엘리아데에 의하면, 무복은 거룩한 존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주적 상징과 형이상학적 의미를 나타내며, 무속의 체계까지 드러낸다고 하였다. 또한 무복은 세속적인 공간과는 다른 종교적 소우주를 나타내며, 거의 완벽한 상징적 체계를 구성한다⁶⁾고 하여 무복의 신성성(神聖性)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무복은 종류와 색채 및 형태에서 각 지역 또는 무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무복의 색채는 남색, 홍색, 빨강색, 노랑색, 흰색, 연두색, 초록색 등 주로 오방색에 해당하는 색채로 묘사되고 있으며, 무복은 인간인 무당이 신을 상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세속에서 신성으로 들어가는 의복인 동시에 신성의 세계에 합당한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무복의 여러 요소에는 많은 상징이 내포되어 있다.

3. 민속놀이

민속놀이란 인간의 여러 행위와 놀이 중에서 민간층에서 발생하여 민간층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놀이를 말한다. 민속놀이는 일정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세시풍속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세시풍속은 농경 신성제의로서 역서에 따라 반복되는 역서제의(曆書祭衣)이며, 고사·점복·예조·금기·무속·부적 등의 민간신앙을 비롯하여, 음식·복식·놀이·예술·농경생활 등에 이르기까지 개별적인 사실들이 복합된 종합성을 띤 문화현상이다. 특히 민간신앙과 민속놀이 및 예능과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민속놀이 중 세시풍속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놀이를 세시놀이라고도 한다.

놀이의 세계는 성속(聖俗)의 이원론으로 본다면 성의 세계이며, 원초적인 카오스(chaos)의 세계이다. 여기서 벌어지는 놀이 역시 성(聖)의 행위이며, 신성한 사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놀이가 벌어지는 놀이판은 일상의 공간과 시간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⁷⁾.

민속놀이는 강한 향토성을 띠는 동시에 대부분 민간제의(民間祭儀)의 성격을 지니며, 그 가운데 예술성이 내재하므로 민속예술로 분류된다.

4. 민속연희

민속연희는 다른 민속 예술에 비해 춤과 음악, 재담, 동작이 함께 어우러진 종합 예술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민속연희는 조선 후기 양반층의 모순이 드러나면서 지배층을 비판하는 중요한 예술 갈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1970년대 이후에도 현대 한국상황을 비판하는 풍자적 의미를 부여한 많은 공연이 이루어지는 등 뛰어난 민중성으로 인하여 많은 탄압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민속연희에는 탈놀이, 인형극, 발탈, 무극(巫劇), 남사당 등이 있다⁸⁾. 이 중 탈놀이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연기자가 가면으로 얼굴이나 머리 전체를 가리고, 본래의 얼굴과는 다른 인물이나 동물 또는 초자연적 존재(신) 등으로 분장하여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연희이다⁹⁾. 탈놀이는 탈[假面]을 쓰고, 탈[災厄]을 방지하기 위해 추는 춤에서 출발한다. 특히 탈은 전형적 인물을 창조하며, 위장을 통한 대담한 표현을 하고, 인간다운 삶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것을 쫓는 역할을 한다¹⁰⁾. 탈을 쓰고 행하는 우리의 모든 연행에는 놀이성, 연극성, 무용성이 모두 내재되어 있으며¹¹⁾, 모든 탈놀이의 기원이 제의에 기반을 두고 발전하였기 때문에 제의성을 나타내게 된다.

탈의 색채가 나타내는 주술적 의미는 마을굿의 풍농기원의 원초적인 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며¹²⁾, 탈놀이에 나타난 색채의 상징성과 인물의 성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색상이라도 색조에 따라 인물의 성격과 위상은 차이를 보인다. 색상에서 붉은색은 젊음과 활동력, 정의 등 긍정적인 성격을 상징하고, 대체로 검정과 흰색 등의 무채색은 부정적인 성격을 상징하고 있다. 색조에서는 채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성격을, 채도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성격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간인의 색채의식은 빨강을 비롯한 원색과 높은 채도의 색채를 동경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5. 원본사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론 확립은 한국 문화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우리 민족의 독특한 역사적·사회적 특징을 기반으로 이론화하여야 한다. 외국의 이론을 한국문화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주제성과 자생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학문적·사회적 혼란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원본사고¹³⁾는 한국문화의 밑바탕에 자리잡고 있는 사고의 틀을 분석한 한국의 독자적인 이론으로, 전통적인 민간사고의 본(本)이면서 민간사고에 기반을 둔 한국의 통과의례·세기풍속·민간신앙·구비문학·민간화(民間畵) 등에서 핵으로 자리잡고 있다. 원본사고는 장구한 시간을 통해 민족의 생활을 지배해 왔으며 전통적인 민간인의 심성은 물론 현대인의 심성에도 깊이 자리잡고 있고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 종교·예술·사회·과학 등에 걸쳐 공통분모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는 분명히 민족의 정신적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을 것이며, 문화의 동력원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¹⁴⁾.

원본사고의 원본(Arche-Pattern)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사고(原思考)의 본(本)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인데, 이와 같은 인간의 원사고는 일정한 하나의 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원사고는 우주질서(공간과 시간의 질서) 즉, 코스모스를 초월한 카오스적 무공간·무시간의 미분적(未分的) 상황에 기반을 둔 사고이고, 그것은 또 유(有)·무(無)·생(生)·멸(滅)·시(始)·종(終)의 구분이 전혀 없는 모든 존재 일체가 미분적(未分的) 상황의 동일 근원이라고 믿는 것이다. 원사고에 의하면 모든 존재가 미분적인 동일 근원이기 때문에 서로 바뀌는 순환이 지극히 자유롭다고 믿으면서 결핍된 존재를 순환을 통해 충족시켜 가며 존재를 영구히 지속시켜 나가려고 한다. 즉, 코스모스가 무공간 무시간의 어둠과 혼돈인 '카오스'로부터 개벽되고, 코스모스 안에 있는 인간을 비롯한 만물이 역시 그와 같은

<표 1> 원본사고에 대한 상황

카오스 (Chaos)	코스모스 (Cosmos)
내세	현세
혼돈 — 미분화 — 무공간, 무시간	우주 — 분화질서 — 공간, 시간
성(聖) — 영원(永遠) — 자유 — 무한계	속(俗) — 순간 — 제약 — 유한계
초현실(제의현장, 놀이판, 공연예술)	현실
행복, 풍요, 건강, 영생	불행, 빈곤, 질병, 사망

'카오스'쪽의 신에 의해 운행된다고 믿어 '카오스'가 궁극적인 존재근원이 된다.

따라서 공간과 시간의 분화 질서인 코스모스(cosmos)의 제약성을 초월한 무공간 무시간의 미분적 상황에서는 인간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으므로 원사고의 미분성은 상상의 기반이 된다. 종교에서 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믿고 내세를 믿으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가난을 부로, 질병을 건강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모든 신앙적 행위와, 전지전능한 불멸의 신들이 등장하는 신화가 모두 원사고의 미분성에 기반을 둔 것으로, 코스모스 안에서 일어나는 제약된 상황에 대한 반대 상황의 사고이며 행위적(宗教)·언어적(神話) 표현 현상이다. 종교와 신화 등이 원사고의 직접적인 1차적 형상화 현상이라면, 현대의 문학·미술·공연예술 등은 원사고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2차적 형상화 현상이라는 관점을 갖게 된다.

한편, 여기서 분명히 구분하여야 할 개념들이 있는데, 여기서의 존재라는 말은 그저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철학의 존재론과는 무관하다. 또한 원본은 융(C.G.Jung)의 원형(Archetypus) 개념과 다르고 엘리아데(M.Eliade)의 원형(Archetype) 개념과도 다르다. 융의 Archetypus는 무의식의 구조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엘리아데 Archetype은 신의 천지창조 행위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앞에서의 원본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굳이 서로의 개념 한계를 밝힌다면, 원본은 무의식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융의 방식으로 말한다면 인간의 의식 층 속에 근원적인 원사고의 본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을 천지창조의 근원으로 보는 엘리아데의 Archetype에 대한 견해를 더 분석하면 신을 천지창조의 근원으로 보게 된 그 심적 기반인 원사고에

도달하게 되어, 원본이 Archetype에 선행하는 사고 기반이다.

이러한 원본사고는 민간신앙, 세시풍속, 구비문학, 민간화, 복식 등 민속 전반에 내재하는 사고이며, 특히 무속에서 원본사고의 밀도가 짙게 나타난다¹⁵⁾.

요약하면, 원본사고는 미분성에 바탕을 둔 존재의 순환·지속 사고로 집약되고, 그것은 존재근원을 카오스로 보고 종말이 전제된 순간적인 코스모스의 모든 존재를 그 존재 근원인 카오스로 되돌아가 다시 새롭게 순환시켜 코스모스의 순간 존재를 단절 없이 지속시켜 나가는 순환적 존재사고이다. 그래서 원본(原本)은 미분성(未分性)에 기반을 둔 순환(循環)의 본(本)을 갖게 된다. 이것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Ⅲ. 기층문화를 통한 한국복식의 색채특성 분석

1. NCS 체계를 통한 색상·색조분석

민간신앙, 민속놀이, 민속연회의 각 범주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190장의 사진에서 의복, 액세서리, 도구에 나타난 색을 시각비색하여 <표 2>와 같은 방식으로 추출한 결과, 총 1174개의 색채가 추출되었으며, 이중 중복되는 색을 제외한 색은 총 296개로 나타났다. 296색의 색상과 색조 분포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복식의 색채 특성은 무채색(특히 흰색)과 유채색도가 낮은 영역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색상은 Yellow, Red, Blue의

<표 2> NCS 체계를 통한 색채 추출

사진 3 꽃밭기1		
의복	액세서리	도구
S 8010-Y10R	S 8500-N	S 0500-N
S 1070-Y20R	S 2070-Y80R	S 0580-Y
S 1070-R		S 2070-Y80R
S 2565-R80B		S 1070-R20B
		S 4050-R60B
		S 2555-B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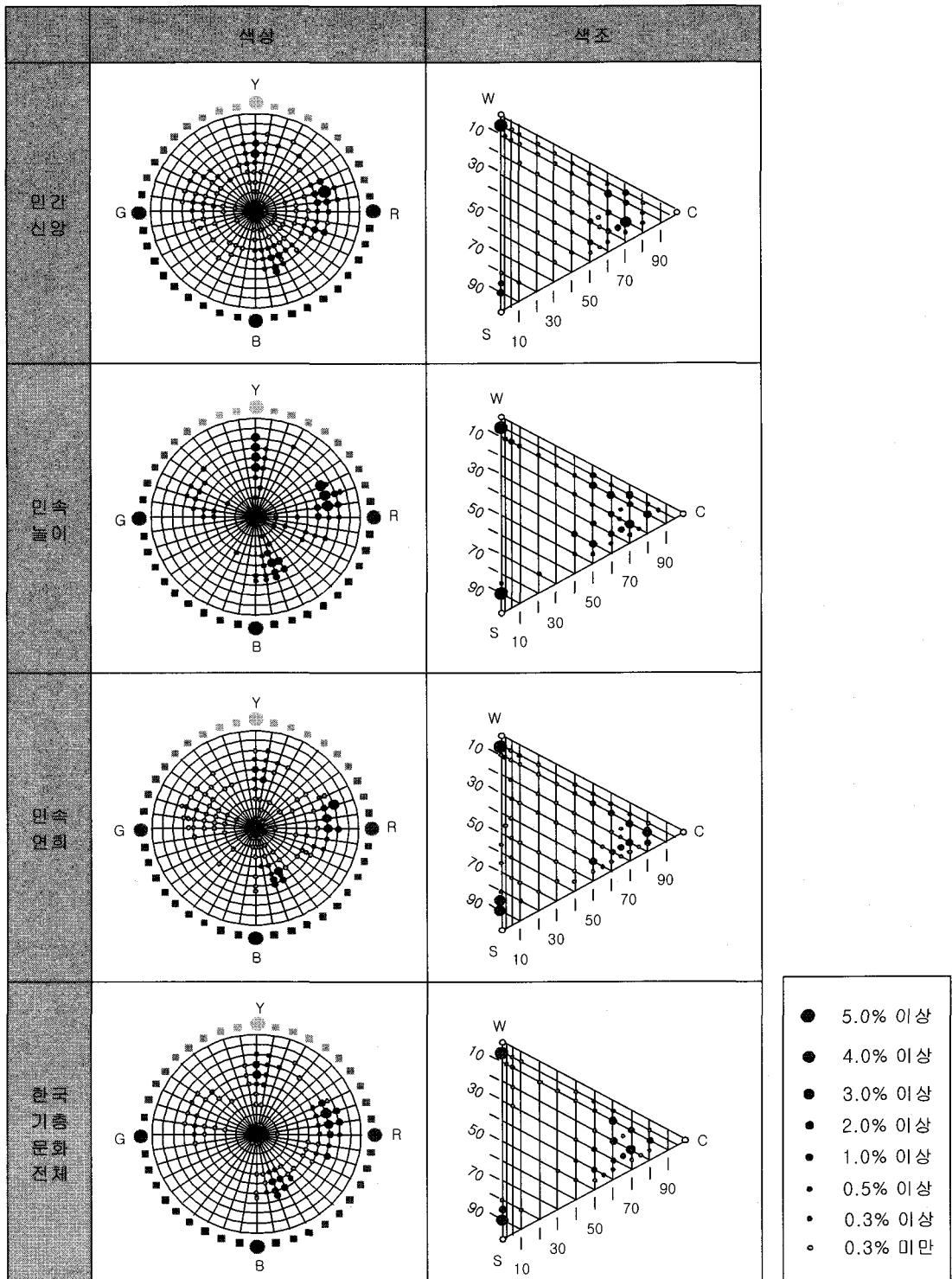
영역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노랑과 노랑 락 락, 보라 락 락 파랑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Green 영역에서는 빈도가 낮았다. 색조는 NCS nu-nance의 1area(Toned light grey), 6area(Toned dark grey)와 유채색도가 높은 영역인 3area(Brilliant), 4area (Deep chromatic)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중간 유채색도에서는 낮은 분포를 보였다(점으 색채의 개수를 나타냄). 또한 난색계열의 색분포가 한색계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세부 범주인 민간신앙, 민속놀이, 민속 연희에 나타난 전체색 1174색에 대한 색상, 색조 분 포와 빈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3>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복식의 색채 296개의 색상/색조 분포

HUE	G75Y-Y25R	Y25R-Y75R	Y75R-R25B	R25B-R75B	R75B-B25G	B25G-B75G	B75G-G25Y	G25Y-G75Y	N
TONE									
1	●●●●●●●●	●●●●●●●●	●●●●●●●●	●●●●●●●●	●●●●●●●●	●●●●●●●●	●●●●●●●●	●●●●●●●●	●●
2	●●●●●●●●	●●	●●●●●●●●	●●●●●●●●	●●●●●●●●	●●	●●	●●●●●●●●	
3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7				●●	●●	●●	●●	●	
8			●	●	●●		●		
9									
0		●		●●●●	●●	●●	●●●●●●●●		

<표 4> 한국기증문화에 나타난 1174색의 색상과 색조의 분포와 빈도



〈표 5〉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복식의 색상과 색조 비교

		민간신앙	민속놀이	민속연희
색상	공통점	Y, R, B 영역에서 높은 빈도 (노랑, 주황 띠 빨강, 보라 띠 파랑)		
	차이점	청록계열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음, 빨강, 초록계열 빈도가 높음	노랑계열 빈도가 높음, 주황 띠 빨강의 빈도가 높음 (Y70R)	초록계열빈도가 가장 낮음
색조	공통점	1, 3, 4, 6 area에서 높은 빈도		
	차이점	유채색도가 높은 색채의 빈도가 가장 높음 (3,4area에 집중) 검정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유채색도가 높은 색채의 빈도가 중간	유채색도가 높은 색채의 빈도가 가장 낮음 (1,6area에 집중) 검정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민간신앙, 민속놀이, 민속연희 세 범주 공통적으로 색상은 Y, R, B 영역에서 높은 빈도로 분포되었고, G 영역에서는 낮은 분포를 보였다. 특히, 노랑은 순노랑의 비중이 높고, 빨강은 주황 띠 빨강(Y80R, Y90R), 파랑은 보라 띠 파랑(R70B, R80B)이었다. 그러나 민간신앙에서는 다른 범주에 비하여, 청록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푸른색이 주로 천민 계층이 착용하던 복식의 색채로 무녀들이 푸른 계열 의상을 입기도 하였고, 또한 불교에서는 5불의 신색중 하나로서 녹색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불교의 영향이 민간신앙에 수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⁶⁾. 민간신앙의 색채는 다른 범주에 비하여 빨강이 검정보다 더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빨강은 파랑과 함께 양의 색상으로 벽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검정은 민간신앙에서 흉한 것을 상징하여 흉례 때에 많이 사용하는 색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민속놀이에서는 다른 범주에 비하여, 노랑 영역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민속놀이는 주술적 바람과 함께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농경의례의 성격을 내포하기 때문에 흉과 풍요의 상징 색채인 노랑이 복식 색채에 많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 민속연희에서 초록계열은 다른 범주에 비하여 가장 낮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세 범주에서 공통적으로 색조는 흰색과 1area (Toned light grey), 6area(Toned dark grey)와 유채색도가 높은 지점인 3area(Brilliant)와 4area(Deep chromatic)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중간 유채색도에서는 낮은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민간신앙에서는 다른 범주에 비하여 특히 3area, 4 area에 속

하는 색채가 더 많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민간신앙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주술적 의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며, 이 때 색채가 주술적 상징으로써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속놀이는 무채색 계열과 밝고 선명한 유채색 계열로 뚜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민속연희는 다른 범주에 비하여 흰색, 검정, 짙은 회색이 나타나는 영역인 1area와 6area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며, 유채색도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다소 낮게 나온다. 이는 이 연구에서 민속연희의 범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탈놀이는 자연의 재앙이나 잡귀에 의한 질병 등 인간과 신령, 인간과 자연 간의 주술적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과의 갈등, 남녀간의 문제 등 일상생활을 소재로 다루고 있어서 한국인이 일상적으로 애용한 무채색 계열의 복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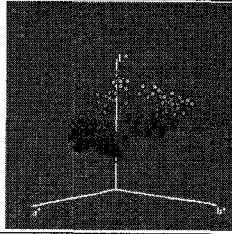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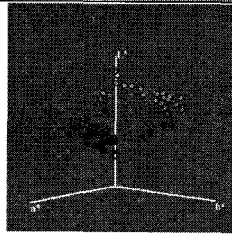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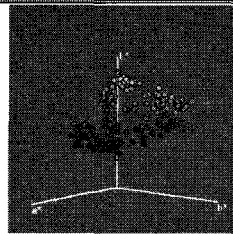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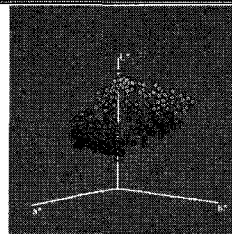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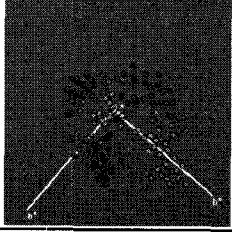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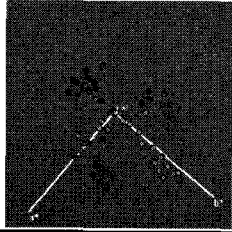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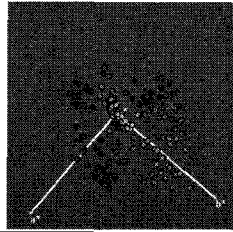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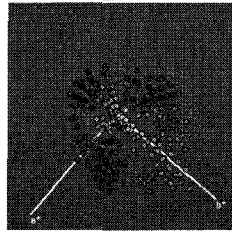
이와 같이 한국 기층문화 각각의 세 범주와 한국 기층문화 전체에 나타난 복식의 색상과 색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2. CIE L*a*b* 체계를 통한 색채 분석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복식 색채(296종류, 총 1174색)의 색채공간에서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NCS값을 CIE L*a*b*값으로 전환하여 소프트웨어 〈COLOR 3D Version 2.0〉를 이용하여 3차원으로 비교·분석하였다(표 6).

공통적으로, 축의 중심과 a, -a, b, -b 축을 중심으로 채도가 높은 영역에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중간채도는 비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6〉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복식의 색채공간 비교

	민간신앙	민속놀이	민속연희	한국기층문화전체
3D				
색상				

빨강이나 파랑영역에서는 명도가 낮게 분포되어 있고, 초록에서 노랑으로 가면서 명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각 분야별로 특징이 되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신앙에서 초록과 청록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많이 나타났고, 검정을 비롯한 무채색에 가까운 색채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낮은 분포를 보였다.

둘째, 민속놀이에서는 초록의 분포가 희박하고, 주황 띠 빨강이 많이 분포한다.

셋째, 민속연희에서는 무채색을 비롯한 무채색에 가까운 색채, 즉 민간인의 일상적인 색채가 많이 분포하였다.

IV. 기층문화를 통한 한국복식 색채의 관념적 의미 분석

1. 이분적 복식 색채 문화의 심성적 기반

한국의 민간신앙은 문학, 놀이, 생활, 예술 등을 비롯하여 한국인의 의식구조나 정신세계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 기층문화의 복식색채 형성에도 많은 관념적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인 한국의 민간인들은 제약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기를 통해 현실의 시간과 공간을 카오스의 상황으로 환원시켜 여기서 생존에 필요한 새로운 존재를 획득해 다시 코스모스의 세계인 현실로 나와 존재를 순환 재생시켜 나가는 삶을 이어갔다. 이러한 카오스 상황은 분화질서가 생기기 전의 상태이므로 언제든지 순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에서 걸뒀던 것을 언제든지 원하는 상태로 바꾸어 현실로 나올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민간신앙, 민속놀이, 그리고 민속연희 등은 코스모스의 공간과 시간에서 벗어나 그 코스모스의 존재 근원인 카오스를 상징하는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사들은 민간인들의 삶이었으며, 일상에서 항상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였고, 늘 곁에 있던 의식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민간인들은 일상생활에서는 백의를 비롯한 무채색 계열의 의복을 입었으나, 카오스를 의미하는 시간이나 공간에서는 일상으로부터 이탈하여 관념화된 의미와 상징성이 내재된 유채색의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미분적(未分的) 상황의 카오스에서 색채가 의미하는 상징을 자유롭게 현실로 가져와서 현실의 제약 상황을 극복하려 하였다. 민간인들은 복식에서 색에 대한 규제가 크게 작용하

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간인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색에 대한 동경과 억눌렸던 색채에 대한 갈증을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여 풀어내게 된 것이다. 즉, 일상에서 사용할 수 없었고, 계급적 구분으로 제한된 색채를 일 년 중 특별한 날 즉, 카오스에 해당하는 날을 통하여 금제의 색을 대담하게 사용한 것이다. 일상에서 무채색 복식을 착용하더라도 공간적으로 신성을 상징하는 곳(예를 들어, 신당, 놀이판 등)의 색채는 무채색이 아닌 의미가 내재된 화려한 유채색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신의 세계 즉, 원하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는 카오스의 세계를 보다 신비롭고 위엄있게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 색채의 사용이었고, 신의 능력을 여러 가지 복식이나 배경의 색채를 통하여 표현하였다. 이러한 색채는 민중의 심성 속에 오랫동안 각인되어진 오방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인에게 있어 행복과 풍요와 절대적 희망, 그리고 신성의 세계는 유채색으로 상징되었다.

현실은 분화의 질서로 인하여 늘 제약이 존재하며, 현실계에서 인간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거부하여 제약의 현실을 없애고 다시 새로운 현실을 만들려는 재생적 순환은 물리적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인간의 상상(想像) 즉 미분성(未分性)에 의한 것이다. 이렇듯 현실의 분화질서를 넘어설 수 있다는 미분성이 민간신앙을 비롯한 민속놀이, 민속연회 등을 전승시켜 나가게 하였으며, 이러한 미분적 사고의 근원인 카오스의 상징 색채를 오랜 역사를 통하여 유채색으로 인식하여 왔기 때문에 그 미분적 사고가 강하게 나타나는 곳에는 언제나 화려한 유채색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시각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유채색들이 곧 제약이 없는 무한한 자유로 가는 상황과 결부되므로, 이러한 미분성은 유채색을 통하여 형상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원본사고의 미분성은 무속을 포함한 민간신앙에서 가장 심도있게 나타나며 그러한 민간신앙을 수용한 한국의 전통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심성은 유채색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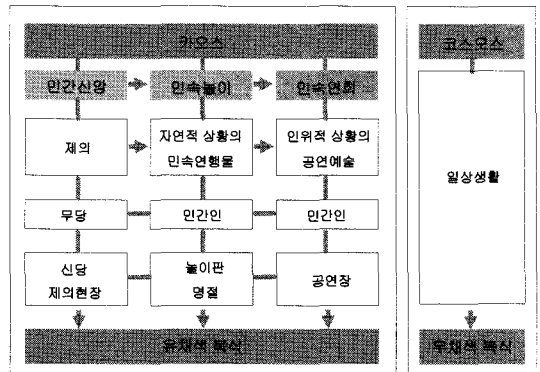
이와 같이, 전통적인 한국의 민간인들은 일상에

서는 전통적 관습과 습관, 그리고 외부의 경제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하여 무채색의 복식을 하였고, 비밀상 즉 카오스의 상황에서는 미분성에 기반한 동일근원의 의미가 내재된 유채색을 복식에 과감히 사용한 결과, 일상과 비밀상으로 양분된 이분적인 복식 색채문화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원본사고와 한국 기증문화에 나타난 복식의 색채 특성

전통적인 한국 민간인들은 일상과 비밀상 즉, 코스모스와 카오스의 상황에서 이분적인 복식 색채문화를 이어왔다.

<표 7> 원본사고와 한국기증문화에 나타난 복식의 색채



다음에서 보여지는 <표 7>은 제의가 자연적 상황의 민속연행물과 인위적 상황의 공연예술로 발전한 민간신앙, 민속놀이, 민속연회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각각은 제의, 놀이판, 공연을 통하여 카오스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각각 무당, 민간인이 되며, 그들이 착용하는 복식은 일상의 무채색 복식과는 다른 유채색 복식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각 분야에 따른 유채색 복식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다.

첫째, 민간신앙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의현장은 일상과는 달리, 인간들의 출입이 금지된 공간이며 인간들이 활동하는 낮이 아닌 밤 시간에 행해진다. 이것은 세속과는 구별되는 공간인

신성, 즉 카오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에서의 사제자인 무당이 입는 무복과 배경장식은 민간인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색채와는 달리 원색적이면서 화려하다. 이 때의 무복은 무당이 신과 인간의 매개자로서 합당한 신복으로 갖추어 입고 신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성장(盛裝)이다. 그리고 무당이 의식을 거행하는 상황부터가 인간이 있는 일상적인 세속의 상황이 아닌 신성의 상황이다. 즉, 금기를 통해 제의 공간이 카오스로 환원되는 것이다.

민간신앙에 나타난 색채 즉, 무복과 배경장식에 나타난 색채는 무채색계열과 빨강계열, 파랑계열, 노랑계열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채색 계열에서는 민간신앙의 색상계열 중 빨강색계열의 빈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종교가 원사고의 직접적인 1차적 형상화이며, 직접적인 주술적 행위이기 때문에 벽사와 성역, 생명의 상징적 의미가 가장 강한 빨강이 다른 색채에 비하여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검정이 상대적으로 빨강에 비하여 적게 나타나는데, 검정은 주로 공포, 죽음 등 부정적 의미의 상징성을 갖고며 흉례 때에 많이 사용된 색채이기 때문에 민간신앙이 지향하는 세계의 상징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빨강색은 인간이 지향하는 건강과 풍요, 행복의 상황인 카오스에 대한 상징 색채이기도 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코스모스 내에서 구현한 카오스의 상황에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획득해서 현실로 나와 현실의 질병과 빈곤을 건강과 풍요로 바꾸어 순환시키려는 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 무복의 공간은 세속과는 구별되는 신성한 세계임을 의미하며, 무복의 화려한 유채색은 신성한 세계의 상징색채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간신앙을 수용하고 있는 한국의 민속놀이·연회 등에서 나타나는 색채도 민간신앙의 색채관에 영향을 받아서 신성한 세계의 상징색채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둘째, 민속놀이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월 초하룻날에서 대보름 사이에 있는 집중적인 민속놀이 중 지금까지 있었던 지나간 해의 묵은 것을 불¹⁷⁾로 태워 없애는 민속과 소란을 부리는 편싸움을 하는 민속은 혼돈의 「카오스」에서 새 질서를

찾아 「코스모스」로 이행하는 제의적 행사이다. 이 때 역시 민간인들은 평상시와는 다른 유채색의 복식을 하게 된다. 이것은 미분적 카오스 상황에서의 신분질서에 대한 규범, 관습의 파괴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일상에서 억압된 색채에 대한 갈등을 일상에서 벗어난 카오스의 기간에 자유로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 해가 끝나면서 새해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우주의 끝과 시작의 혼돈기인 카오스에서 색채에 대한 의미를 자유롭게 가져와 풍년이나 건강의 획득으로 현실을 운택하게 하고자 하는 민간인들의 심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행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힘이 약화되므로 주기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민속놀이에 나타난 복식의 색채는 무채색계열 외에 빨강계열, 파랑계열, 노랑계열 중 빨강계열이 제일 높은 빈도를 보이지만 노랑도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민간신앙에서 지향하는 카오스는 소망의 수준이 매우 높고,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보다 더 비현실적 상황을 지향하는데 비해, 민속놀이에서 지향하는 카오스는 주술적 바람과 함께 공동체의 소망이나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등 농경의례의 성격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 소망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현실적이다. 따라서 주술적 의미가 극대화된 상징적 색채 사용의 편중 보다는 빨강과 함께 노랑도 다른 분야에 비하여 높은 빈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랑은 흉과 풍요, 풍년을 상징하는 색채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에 공동체의 카오스 지향은 이러한 색채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민속놀이를 통하여 코스모스를 카오스로 환원시키고 미분적 동일근원으로 돌아가 색채가 상징하는 의미들을 현실로 가져와서 존재를 영구히 순환 지속시키고자 한다.

셋째, 민속연회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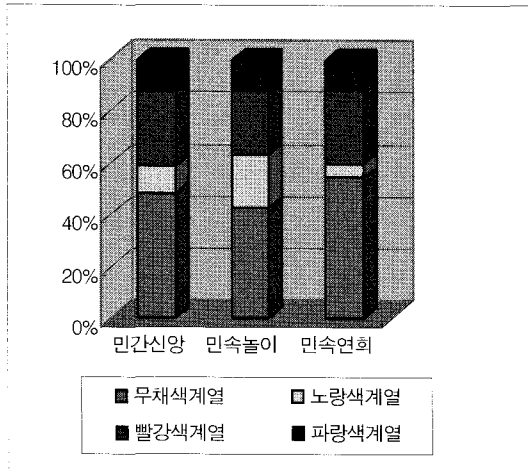
제가 지향하는 카오스의 세계가 신성을 기반으로 한 자연적 상황이라면, 공연예술인 민속연회에서 지향하는 카오스의 세계는 신성적 기반이 없는 인위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민중은 고달프고 욕구가 충족될 수 없는 제약된 현실 즉, 코스모스 상황에서의 카오스 지향을 극으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극은 신앙적 차원에서 유래했지만 주술적인 성격과 함께

현실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인간과 신령, 인간과 자연 간의 주술적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과의 갈등, 남녀간의 문제 등의 내용을 폭 넓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극이 지향하는 상황의 시공간이 현실에 기반을 두어 일상생활을 소재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민속연희에 나타난 복식의 색채는 민간인의 일상적인 색채인 무채색 계열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각 분야에서 원본사고에서의 미분성이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색채는 어떻게 형상화되어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밝힌듯이 원본사고에서의 미분성은 한국의 전통사회 전반에 걸쳐 두루 나타나며, 민간신앙을 비롯한 민간신앙을 수용하고 있는 민속놀이, 민속연희 등의 예술에도 널리 나타나는 현상인데, 민간신앙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표 8〉은 위에서 설명한 민간신앙, 민속놀이, 민속연희에 나타난 복식에서 1%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색채의 색상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8〉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복식의 색상 빈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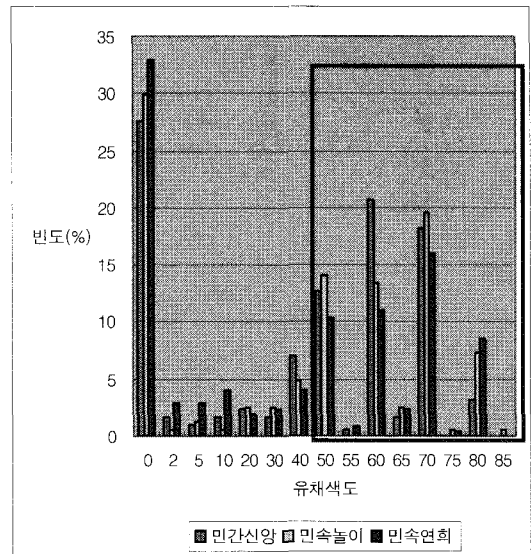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복식의 색상은 앞에서 언급한 사실과 같이, 전체적으로 오방정색을 중심으로 한 원색이 많이 사용되었다. 민간신앙, 민속놀이, 민속연희로 구분할 때 색상에 있어서 각 범주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지만, 규칙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 〈표 9〉는 위에서 설명한 민간신앙, 민속놀이, 민속연희에 나타난 복식 전체에 나타난 색채의 색조를 정리한 것이다.

〈표 9〉에서 살펴보면, NCS nuance의 3area(Brilliant), 4 area(Deep chromatic)에 속하는 색조의 빈도가 민간신앙, 민속놀이, 민속연희에 각각 44.40%, 43.90%, 38.92%로 민간신앙에서 가장 채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9〉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복식의 색상 빈도 비교



	민간신앙	민속놀이	민속연희
3area, 4area에 속하는 색조의 빈도	44.40%	43.90%	38.92%

즉, 한국의 색채문화는 음양오행사상에 의한 색채관의 영향으로 모든 분야에서 공통으로 오방색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색상의 사용 빈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색조에서는 민간신앙, 민속놀이, 민속연희의 순서로 채도가 높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세 영역에서 나타나는 민간신앙의 수용 정도에 따라 색조의 특성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즉 카오스를 지향하는 민간인의 소망이나 기대가 종교에서 더욱 직접적이고도

분명하게 나타나므로, 색채사용에서도 색채가 더욱 강렬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한국 기층문화가 민간신앙에서 분화하여 놀이 및 연희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이 색조로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상 요약하면, 종교에서 예술로 발전한 민간신앙, 민속놀이와 민속연희의 세 범주에서 나타나는 원본사고의 미분성의 심도에 따라 색채의 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미분성이 가장 짙게 나타나는 민간신앙을 수용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색조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민간신앙, 민속놀이, 민속연희 순서로 채도가 높게 나타나서, 종교적 상황이 예술적 상황보다 채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원본사고에서의 미분성의 상징은 한국 기층문화에서 색채의 특성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상 종합해 보면, 민간인들은 시대마다 있어 온 색의 규제 때문에 일상과 비일상의 이분적인 복식 색채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즉, 일상 시간이나 일상 공간에서는 백색을 비롯한 무채색 계열의 복식을 착용하였고, 일상의 시·공간을 제외한 시간과 공간에서만 제한적으로 유채색의 사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유채색 복식은 첫째, 세속과 구별되는 신성세계의 상징이었으며, 둘째, 카오스 세계로 들어가 현실에서 필요한 존재를 획득하여 코스모스의 세계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도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한 시대나 한 계층에 제한되지 않고 민족의 보편다수를 형성하는 민간인에 의해 생성·전승되는 기층문화에 나타난 복식의 색채 연구를 위하여 한국의 기층문화가 표현된 중요무형문화재를 채택하여 민간신앙, 민속놀이, 민속연희로 나누어 복식의 색채특성과 관념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색채특성 분석은 NCS 색체계를 이용한 2차원 분석과 <COLOR 3D>를 이용한 3차원 분석을 하였고,

관념적 의미 분석은 문헌고찰을 토대로 한 원본사고를 통하여 해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색채문화는 음양오행사상에 의한 관념적 색채관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공통으로 오방색이 사용된 것으로 연구 보고 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도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복식의 색채는 흰색, 회색, 검정의 무채색과 노랑 띠 빨강, 노랑, 보라 띠 파랑이 주조색으로 나타나,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색상이 기저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전통적인 한국의 민간인은 현실적인 생사화복(生死禍福)에 집착해 있고 현세적인 복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이상이나 윤리성보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생존동기가 크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카오스의 신성을 지향하는 행위(제의, 놀이, 공연 등)에서는 색채 사용에 있어서도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치거나 모호한 상징성을 갖는 색채보다는 그 효과를 직접적이고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원색적인 선명한 색채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현대 민속축제의 일환으로 행하는 제의, 놀이, 연극 등에서 보는 원색 계열의 색채는 전통적인 민간인들이 절박한 현실 극복을 위하여 카오스적 의미를 담은 색채를 사용했던 일면이 계승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원본사고의 미분성은 무속을 비롯한 민간신앙에서 그 농도가 가장 짙게 나타난다는 것과, 민간신앙을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색조에서 차이가 나타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한국 전통사회 전반에서 발견되는 특성인 원본사고에서의 미분성의 상징은 색채의 특성으로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복식의 유채색은 세속과 구별되는 신성세계의 상징이었으며, 카오스 세계로 들어가 현실에서 필요한 존재를 획득하여 코스모스의 세계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도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한국 기층문화에 나타난 복식의 색채를 통하여 한국 기층 서민의 종교적·사상적 삶의 방식에서 독자적으로 채택된 색채의 원형을 규명함

으로써, 현재 한국복식의 색채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제까지 기층문화를 통하여 한국복식의 색채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한국문화 중 기층문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으나, 기층문화는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모든 계층의 문화를 수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민간인들에게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기층문화를 통한 한국복식의 색채 연구는 한국 문화의 색채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해석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하며, 불로 태워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무(無)의 세계 「카오스」로 되돌아 가는 것을 상징한다.

- 18) 김지영(2003). 한국기층문화에 나타난 복식의 색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71-180.

참고문헌

- 1) (주)두산 출판BG(2000). 두산세계대백과사전 EnCyber. 서울: 두산동아
- 2) 심우성 외(2001). 한국의 전통예술. 서울: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p.23.
- 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2001). 한국민속의 세계.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6권, p.127.
- 4) 김태곤(1981). 한국무속연구. 서울: 집문당, p.11.
-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찬부(198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8권, p.190.
- 6) Mircea Eliade(1964). *Shamanism archaic techniques of ecstasy*. New York: Pantheon Books, pp.145-147.
- 7) 장장식, 김명자 외(1999). 한국민속학개론. 서울: 민속원, pp.55-57, pp.323-324, pp.351-352.
- 8) 홍태한 외(1999). 한국민속학 개론. 서울: 민속원, p.373.
- 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찬부(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2권, p.888.
- 10) 정형호(2000). 양주별산대놀이. 서울: 화산문화, p.4.
- 11) 정상박(2001). 수영야류. 서울: 화산문화, p.14.
- 12) 임재해(1994). 한국민속과 오늘의 문화. 서울: 지식산업사, pp.109-113.
- 13) 원본사고가 본격적으로 발표된 것은 김태곤에 의하여 1980년 8월에 출판된 <한국민속학> 12집의 “한국무속의 원형연구” 1980년, 민속학회)이다. 그 후 <한국무속연구>(1981년, 집문당), <한국민간신앙연구>(1983년, 집문당) 등에서 더욱 심도있게 다루어졌고, 지금까지 한국문화에 대한 분야에서 이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14) 김태곤(1981). 한국무속연구. 서울: 집문당, p.462.
- 15) 김태곤(1994). 한국민간신앙연구(3판). 서울: 집문당, pp.314-331.
- 16) 김영인(2001). “색동이야기” 색색가지세상. 서울: 도서출판국계, p.68.
- 17) 불은 소거(消去)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체의 것을 불로 태워 없애버린다는 것을 의미